

다케우치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와 ‘조선’이라는 토포스

강해수 _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목 차

- I. 다케우치를 ‘한국’에서 묻는다고 하는 것
- II. 다케우치의 한국(조선) 인식과 ‘식민지주의’, 그리고 아시아
- III. ‘사건’으로서의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
- IV. ‘대항축’으로서의 ‘아시아주의’
- V. 한국에서의 ‘포스트 다케우치’ 담론의 번역이 시사하는 것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 글은 ‘중국(문학)연구자’로 알려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및 ‘아시아주의’론의 논지를 ‘한국(조선)’이라는 장소에서 되새겨본 것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한국(조선)’이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말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어떠한 문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케우치가 1963년 8월에 「아시아주의의 전망」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의 조선사연구자들을 비롯한 역사연구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당시의 비판에 대한 다케우치로부터의 반박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그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여기에

서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다케우치가 당시에 ‘아시아주의’론 및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통해 제기하고자 하였던 문제를, 현재의 ‘우리의 물음’으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포스트 다케우치’ 담론을 전개한 연구자들의 한국에서의 번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물음은 아시아의 ‘동시대적 상황’과의 부단한 연관 속에서, 앞으로의 한중일의 다케우치연구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주제어

다케우치 요시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아시아주의, 미조구치 유조, 가라타니 고진

I . 다케우치를 ‘한국’에서 묻는다고 하는 것

이 글은 ‘중국(문학)연구자’로 알려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및 ‘아시아주의’론의 논지를 ‘한국(조선)’이라는 장소에서 되새겨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한국(조선)’이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말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어떠한 문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후술하는 것처럼, 다케우치가 1963년 8월에 「아시아주의의 전망」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의 조선사연구자들을 비롯한 역사연구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당시의 비판에 대한 다케우치로부터의 반박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그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

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다케우치가 루쉰(魯迅)연구 등의 중국문학연구자로 출발하여 ‘아시아주의’론을 발화했다는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일본 및 한국에서의 다케우치연구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 왔다. 본고에서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한국(조선)’에서 물으려함은, 이와 같은 다케우치의 학문적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론을 한국에서 물어볼 때의 의의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케우치의 문제 제기를 “우리의 물음”¹⁾으로 가져와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아시아의 ‘동시대적 상황’과의 부단한 연관 속에서, 앞으로의 한중일의 다케우치연구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II. 다케우치의 한국(조선) 인식과 「식민지주의」, 그리고 아시아

다케우치는 그의 일생을 통해 한반도를 한번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31년 도쿄제국대학 ‘지나문학과’에 입학한 다음 해 여름에, 중국 동북지방으로 여행가는 도중 한반도에 일주일 정도 머문 것이 전부다.²⁾ 다케우치는 그때의 조선인의 인상을 “조선인 여자, 세수간에서 아이를 맡아

1) 중국문학연구자인 백지운은 “다케우치의 사유를 동아시아인의 사상유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포리아를 우리의 물음으로 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백지운, 「다케우찌 요시미라는 아포리아」, 『창작과비평』 136,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7.6, 313쪽)고 논한 바 있다.

2) “내가 조선 토지를 밟은 것은 이전과 이후를 통털어 단 한번, 지금부터 42년 전의 여름에 중국 동북으로 여행가는 도중의 일주일 정도의 기간뿐입니다”(「おもかげの消えぬ人」, 1974.10, 「私と朝鮮文化」,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24, 朝鮮文化社, 1974.12)에 발표. 『竹内好全集』 5, 東京: 筑摩書房, 1981, 245쪽. 이하 『全集』으로 약기).

벗긴 채 씻기고 있다”³⁾, “자동차운전사가 말하길 센진(鮮人)들은 밤에 도로에서 잔다고 한다. 베개로 하는 돌이 테굴테굴 굴러다니고 있다”⁴⁾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다케우치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전후’인 1950년대부터 그가 사망하는 1970년대에 걸쳐, 조선·조선인(한국·한국인)을 둘러싼 발언을 내어놓고 있다. 즉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을 기화로 하여⁵⁾, 1958년에는 재일한국조선인작가인 김달수(金達壽, 1920~1997)가 지은 『조선』에 대한 서평에는 한국(조선)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을 제고하는 글을 싣고 있다.⁶⁾ 1960년 1월 25일에 국제기독교대학 아시아문화연구위원회가 주최한 ‘사상사방법론강좌’에서 행한 강연인 「대상으로서의 아시아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는, 한국과의 관련 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속죄감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점차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약해져가도록 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한국과의 국교(교섭-인용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만, 것처럼 괴롭힘을 당했다면 무리도 아닙니다. 십 년 이십 년 가지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3) 『鮮滿旅行記』(1932), 『全集』 15, 1981, 4쪽.

4) 위의 글, 8쪽.

5) 다케우치는 “통일에 대한 원망(願望)이 국제정치를 이용하는가 이용되는가에 따라, 무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은 조선민족의 역사적 비극이다”(『日本共産党論(その三)』(1950.8), 『全集』 6, 1981, 155쪽)라고 말한다.

6) 『金達壽 著 『朝鮮』』(『日本讀書新聞』(東京: 日本出版協會, 1958.10.13), 『全集』 5, 233쪽). 그 밖에 「기본적 인권사상과 근대사상」에서는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적 감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표명하고 있다(『基本的人權思想と近代思想』, 오사카 아사히(大阪朝日)회관에서 부락(部落)문제연구소 주최의 공개강연회(1959.12.1), 『全集』 9, 1981, 14-15쪽).

됩니다. 민족이 부끄러움을 모르고서는 세계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⁷⁾

이듬해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로 제목을 수정하여 『사상사의 대상과 방법』에 수록된 이 유명한 강연문은, 다음 장에서 고찰할 1963년의 「아시아주의의 전망」으로 그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발언에 나타난 한국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다케우치는 1964년에 들어와 한국에 대한 상기의 ‘속죄감’을, “(러일전쟁)전승의 결과로서 조선을 병합해버렸다. 이는 명백히 제국주의이고 식민지주의이다”⁸⁾라는 말로 표현한다. 공표의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발언은 「아시아주의의 전망」에서 다케우치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주의를 용인하고 있다는 조선사학자 및 역사학자들의 비판을 무색하게 한다. 즉 다케우치는 일본의 ‘조선병합’을 “제국주의이고 식민지주의”라 규정하면서, 또 아래와 같은 역사인식을 표출한다.

쑨원(孫文)도 네루도 일로(日露)전쟁이 아시아부흥을 위해 공헌한 일면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 후에 이어진 조선병합에 대해서는 극구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로전쟁과 일한병합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면 양자가 함께 비판을 받아야할 것이지만, 쑨원이나 네루는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논리조작 상으로는 양자를 분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가의 다수는 그것을 공론으로서 배척하지만, 나에게는 그들 쪽이 역사의 진실의 모습을 통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만일 일로전쟁에서 일본이 졌다면, 러시아가 조선을 병합했을지도 모릅니다.

7) 竹内好, 「方法としてのアジア」, 武田清子 編, 『思想史の方法と対象』, 東京: 創文社, 1961, 235쪽.

8) 竹内好, 「中国近代革命の進展と日中関係」(1964.10.31 후쿠오카유네스코에서 강연), 『全集』 4, 1980, 371쪽.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조선이 러시아의 지배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바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대신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도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아, 일본의 근대화는 직접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서구적 방식을 전부 본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로전쟁과 일한병합 사이에 일선을 긋는 논리,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도출되지 않고, 또 근대화이론에서도 도출되지 않는 것입니다.⁹⁾

쑨원과 네루의 “일로전쟁과 일한병합 사이에 일선을 긋는 논리”¹⁰⁾는 “서구적 방식”을 추종한 “일본의 근대화논리”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중국과 인도의 근대 역사적 과정 상의 “질적인 차이”에 기초한 것이라 다케우치는 논한다. 또 이것이 “역사의 진실의 모습”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나 일본이 답습한 ‘근대화이론’과는 대조되는, 중국과 인도의 근대기의 여정이 가지는 “질적 차이”에 대한 강조는 다케우치 특유의 ‘근대’를 둘러싼 사고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다케우치는 ‘근대’의 달성을 시간적 선후의 문제로써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관계되는 “질적 차이”

9) 「中国近代革命の進展と日中關係」, 371쪽.

10) 다케우치는 「메이지유신과 중국혁명」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쑨원(孫文)은 더욱이 “그때 유럽에서는 일본과 동맹국인 영국인조차 러시아가 패배한 것을 부모가 죽은 때처럼 슬펐다”고 술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쑨원의 생각에서 보면, 인종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권력정치와 도의(道義)정치의 대립으로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만 일로전쟁은 바람직했지만 그 결과로서 조선을 병합한 것에 대해서는 극구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일본인의 공식적 입장에서 말하면, 만일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러시아가 조선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한 바대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권리를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반합니다. 모처럼 있던 왕도가 패도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 조선에서부터 다시 만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연장으로서 30년 전의 전면전쟁이 있었습니다”(竹内好, 「明治維新と中国革命」(1967.11.29. 센슈(専修)대학에서 행한 강연, 동년 11월호의 『専修大学新聞』에 발표), 『全集』 5, 161-162쪽).

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케우치의 이런 “질적 차이”라는 역사적 인식 방식은, 예를 들면 한일합방을 일본의 침략주의적 노선으로 보는가, 아니면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연스런 전개 과정으로 보는가 하는 관점에서 있지 않다. 이 같은 “질적 차이”로써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일본 및 아시아의 근대적 역사의 과정을 평가하는 시점은, 이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도 표명된 것이다. 「아시아주의의 전망」 발표 다음해인 1964년 1월의 「일본인의 아시아관」에서는, 그러한 ‘근대’에 대한 ‘질적’ 시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잃어버린 것은 메이지(明治) 이래로 배양해온 아시아를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자세이다.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에 책임을 지는 자세이다. 그것을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만일 원한다면 세계국가, 세계정부가 실현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다. 처음 패전을 체험한 충격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조선 국가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난폭은 있었지만, 어쨌든 일본은 과거 70년 동안 아시아와 함께 살아왔다, 거기에는 조선이나 중국과의 관계없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이 작동하고 있었다. 침략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침략에는 연대감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측면도 있다. 무관심하게 타인에게 말기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건전하기조차하다. (중략) 침략을 증오하는 나머지 침략이라는 형태로써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연대감마저 부정하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흘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것으로는 일본인은 언제까지나 목적 상실감을 회복할 수 없는 까닭이다.¹¹⁾

11) 竹内好, 「日本人のアジア観」(1964. 1), 『日本とアジア』(『竹内好評論集』 3, 東京: 筑摩書房), 1974(초판은 1966), 84쪽.

위 문장에서의 “아시아를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의 마지막 문장에서의 “즉 주체형성의 과정으로서는”¹²⁾이라는 문장과 일관한다. 다케우치는 또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에 책임을 지는 자세”인 ‘아시아(인)’으로서의 ‘주체적 자세’는, 이미 일본의 메이지시대 이후로 생성되어왔었던 ‘아시아연대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다케우치가 “조선 국가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침략에는 연대감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쓴 것도, ‘아시아연대감’이란 것으로 일본의 서구적 근대화 과정을 상대화하는, ‘방법’적 시각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케우치의 사상적 태도를, 근대 일본의 침략주의에 대한 경시 내지 호도라 비판하는 의견도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망하기 4년 전쯤에 발표된 글에서 다케우치는, 오늘날의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관련하여,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대해 세부까지 알지만,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는 계급과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인륜관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며, 또한 편견과 차별의 발생원이다. 따라서 우리들 일본인은 한국인이 일본을 보는 것과 달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한국인의 생활감정과 사상을 엿볼 수 없는 역사적 숙명을 짊어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숙명은 오늘날 여전히 충분히 자각되고 있지 않다. 이대로는 이웃나라와의 대등한 우호를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다”¹³⁾

고 논하고 있다. 만년에 쓰여진 또 다른 글에서 다케우치는 “우리들이 세

12) 이 문구는 강연인 「대상으로서의 아시아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는 보이지 않으나, 강연문이 『思想史の方法と対象』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첨가되었다.

13) 「時勢の要求を満たすもの—『現代韓国文学選集』について」(『現代韓国文学選集』5 (冬樹社, 1973.4), 『全集』5, 243-244쪽).

계 또는 아시아라고해도 좋지만 그 상(像)을 그릴 때, 조선이 거의 시야 바깥에 있다고 하는 현상(現狀)이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관계도 제일 밀접한데도, 일본인의 세계지도에서는 아직까지 결락되어 있다. 평소에 의식에 없을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 이것으로는 정확한 자기인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만일 ‘일본 안의 아시아’에 조선이 결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지도는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 안의 일본’도 부정확하게 된다¹⁴⁾며 타자로서의 한국(조선)의 존재를 강조한다. 다케우치는 이와 같이 근대 일본의 ‘자기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조선)이 ‘경시’된 타자로 된 것은 “일한병합의 결과로 그 이전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다케우치는 “메이지시대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외국은 조선이었”음을 상기하는 한편,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일합방이 단행되었으나, “1945년에 독립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민족의 입장에서는 역사가 연속되고 있지만, 우리들 측은 그런 관점으로 이웃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지만 조선만큼 심하지는 않다”¹⁵⁾고 논한다. 다케우치는 이처럼 메이지시대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와 그에 이은 한일합방에 의해 생긴, 한일 간의 자타인식의 훼손 및 역사 의식의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일 민중 간의 ‘연대’¹⁶⁾를 염두에 둔 이 같은 다케우치의 한국(조선) 타자관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 환기와 함께, 1950년대와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한 1960대, 그리고 이후의 1970년대의 일본 식자들의 담론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14) 竹内好, 「アジアの中の日本」(『近代化の展開』, 『総合講座・日本の社会文化史』5, 1974), 『全集』5, 173쪽.

15) 위의 글, 173~174쪽.

16) 여기에 관해서는, 竹内好, 「日韓交渉私感」(『世界』204, 東京: 岩波書店, 1962.12), 『全集』9, 353~355쪽을 참조).

‘중국(문학)연구자’로서의 다케우치는 “조선에 관한 지식이 결락되어 있는 것이 일본인의 중국인식에도 큰 손해가 되고 있다. 나 자신이 중국을 공부하고 있기에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중국연구의 일부를 할애해 조선을 연구한다는 연구태세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¹⁷⁾고 말하는 것이다.

Ⅲ. ‘사건’으로서의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

다케우치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발표한 후, 여기에 관철되어 있는 그의 관점을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 전개의 구체적인 흐름 속에서 생각해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1963년 8월(원고는 7월)에 발표된 「아시아주의의 전망」¹⁸⁾이 그것이다. 이 글은 그가 편집을 담당한 『현대일본사상대계』 제9권에 실린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 관련 저작에 관한 해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이 ‘아시아주의자’들의 저작과 해제의 글이 발표되자 이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 식민지경험을 가진 ‘조선사’의 연구자들을 비롯한 역사학계 진영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

17) 「アジアの中の日本」, 174쪽. 다케우치는 1972년에 ‘아시아학’을 제창한다(竹内好, 「序章〈アジア学〉の視点」, 竹内好 編, 『アジア学の展開のために』, 創樹社, 1975). 다케우치가 가다카나로 표기된 ‘아시아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제국 일본의 “과거의 지나(支那)학이나 대동아공영권학(大東亞共榮圏学)의 신편”(14쪽)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 竹内好 編, 「アジア主義の展望」, 『アジア主義』, 東京: 筑摩書房. 1966년 발간의 『일본과 아시아』(『日本とアジア』(竹内好論集 第3巻), 東京: 筑摩書房)에는 「일본의 아시아주의」(「日本のアジア主義」)로 제목이 바뀌어 있다. 이 책 뒤의 논문 해제에서 다케우치는 “이 책은 내가 편집하고 연표도 내가 만들었다. 이전부터 이 분야의 문헌을 한번 일괄적으로 전망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법 널리 재료를 찾아다녔다. 이 작업은 즐거웠다. 시간제한이 있고 가끔은 병이 나기도 하여 후반부를 서둘러 쓴 정도로 그치고, 「근대의 초극」만큼 치밀하게는 완성하지 못했다”(428쪽)고 밝히고 있다.

학계도 그러하나,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에 대한 한국 학계 연구에서도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하지만 다케우치의 많은 글들 중에서 「아시아주의의 전망」을 비롯한 그의 '아시아주의'론이 재일한국조선인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일본의 조선사연구자들과 역사연구자들 사이에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사실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선근현대사가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해온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35-1989)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의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최근 대한(對韓) 재진출이 강행되려는 상황 가운데서 다케우치 요시미 씨·한자와 히로시(判沢弘) 씨 등이 재평가·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주의'의 이 같은 측면일 것이다. 그것은 현시점에서의 자본의 요구와 격이 딱 맞고, 실제 내각조사실 등에서의 자금으로 발행되고 있는 '일한회담' 추진을 위한 팸플릿이나 「자민당 일한회담 추진PR요망(要綱)」은 같은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다케우치씨 등은 의도적인 선동자이기보다, 주관적으로는 반체제 측에 서 있으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고 있는 만큼 그 설득력에 대해 우리들은 위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¹⁹⁾

허세나 아시아에 대한 허위 인식, 공소한 헤로이즘으로 그럴싸하게 분식되어 있을 뿐이다. 다케우치의 이 같은 발언이야말로 나에게

19) 梶村秀樹, 「『日本人の朝鮮観』の成立根拠について—「アジア主義」再評価論批判(1964), 『梶村秀樹著作集』1, 東京: 明石書店, 1992, 107쪽. 「아시아주의의 전망」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자 진영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표시한 대상이 다케우치 글의 영향 하에서 쓰여진 한자와 히로시(判沢弘, 1919~1987)의 「동아공영권의 사상—우치다 료헤이를 중심으로」(『東亜共栄圏の思想—内田良平を中心に』(『思想の科学』21, 思想の科学研究会, 1963. 12)인 바, 이를 반박하는 글이 楠原利治·北村秀人·梶村秀樹·宮田節子·姜徳相, 「『アジア主義』と朝鮮—判沢弘「東亜共栄圏の思想」について」(『歴史学研究』289, 青木書店, 1964.6)이다.

는 불가해하고, 또 불쾌하다. (중략) 재차 내셔널리즘, 아시아주의로 ‘민중’을 결집하자고 말하는 것인가? 나는 그런 계기를 역사상에서 발견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고, 그로 인해 낙담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낙담한다는 것은 주체성과 사실(事實)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아시아주의와 같은 손때 묻은 용어를 몇 번이나 재검토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부정의 계기로 하기를 ‘민중’에 호소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²⁰⁾

가지무라는 “주체성과 사실(事實)”을 중시하는 ‘민중사’가의 입장에서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가무무라에 있어서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은 단지 이의 “재평가·복권”을 ‘분식’하는 서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치권에서의 “일한회담추진”과 서로 논리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다케우치는 실제 ‘일한교섭’ 상의 한일 “민중끼리의 우호”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박정희군사정권 하에서 “한국 민중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이 특정정권의 승인을 먼저 하는 일은 일종의 내정간섭이자 장차 화근을 부를 것”²¹⁾이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가지무라는 다케우치의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1874~1937) 등의 겐요샤(玄洋社)²²⁾ 논의²³⁾과 관련하여, 다음

20) 梶村秀樹, 「竹内好氏の「アジア主義の展望」の一解釈」, 위의 책, 102~103쪽.

21) 竹内好, 「日韓交渉私感」, 354쪽.

22) 옛 후쿠오카(旧福岡)의 번사(藩士) 등을 중심으로 1881년에 결성되었으나 1946년에 해산되었다.

23) 「아시아주의의 전망」에서 다케우치는 아래와 같이 논한다.

“玄洋社(및 黒竜會)가 애초부터 한결같이 침략주의였다는 규정은 절대평화론에 의하지 않는 한 역사학으로서는 무리가 있다. 또 도야마(頭山)나 우치다(内田) 개인의 사상적 경력에 비추어보아도 무리가 있다. 중국혁명에 대한 간섭과 만몽 점령의 시기만에 한정해서 보면 일본의 국책은 분명히 침략적이었지만, 이 책임을 玄洋社=黒竜會만에 전가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을 것이다. 늦게 출발한 일본의 자본주의가 내부의 결함을 대외진출에 의해 커버하는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1945년까지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인민의 힘의 미

과 같이 그들 '겐요샤'의 제반 활동이 결국은 "아시아침략 확대의 첩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 반박한다.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 겐요샤(玄洋社)계의 대륙낭인=‘재야아시야주의자’는 일찍부터 약간 뉘앙스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망명시기의 김옥균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였고, 정부의 냉대를 비난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불우한 혁명가에 대한 동정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라, 사후의 행동에서 입증된 것처럼 아시아 침략 확대를 위한 첩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1930년대 이후의 ‘대동아공영권’ 시대에는 그들의 주장과 평가가 주류의 지위에 오르면서 대량의 출판물이 유포되었다. 망명기의 김옥균과의 접촉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뇌수에 여과된 소재(素材)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평가문제를 논할 수 없는 곳에 우리들의 곤란이 있다.²⁴⁾

한편 재일한국조선인으로서 조선사상사연구자인 강재언(姜在彦, 1926~)도 다케우치의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와 이용구(李容九) ‘재평가’에 대해, “전쟁에 투입된 전(全)에네르기를 계승해서 다케우치는 도대체 어떠한 사상을 형성하고 싶은 것인가? ‘침략에 의한 연대’라는 것을 오늘날에 계승해서 재현하고 싶기라도 하는 것인가? 우리들은 이를 낭비로 보는 것에 미련을 두는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중략)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약함에 기초하지만, 이 패턴을 성립시키지 않는 계기를 역사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가 오늘날의 아시아주의의 최대의 문제가 놓여 있을 것이다. 전후에 갑자기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지만(이이즈카 고지(飯塚浩二)『아시아의 내셔널리즘』 참조), 이는 과거의 아시아주의와 단절하여, 덴신(天心), 도텐(滔天), 우치다(内田), 오오카와(大川)와 관계없이 논의되는 것에 대저 문제가 있다”(『アジア主義の展望』, 61쪽).

24) 梶村秀樹, 『朝鮮近代史と金玉均の評價』(『思想』 537, 岩波書店, 1969. 3.), 『朝鮮史の枠組みと思想』, 東京: 研文出版, 1982, 93-94쪽.

침략과 피침략의 민족 간의 연대는 반제(反帝)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밖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와 이용구(李容九), 거기에 상징되는 침략과 매국 사이에 ‘연대’라는 사상이 싹틀 토양이 없는 것이다”²⁵⁾라고 논박한다. 이 밖에 일본근현대경제사가인 나카세 도시가즈(中瀬寿一, 1928~2001)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에 관해, “신식 민주주의의 논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래전의 낭만적인 울트라 내셔널리즘에의 향수와 모랄리셰·에네르기로 떠받혀진, 소위 군사적, 봉건적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침략의 영웅적 이야기에 대한 재평가라고도 할 만한 인상에 가깝다”²⁶⁾고 비판한다.

당시 가지무라를 비롯한 ‘조선사’연구자 진영 등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다케우치로부터의 반론은 없었다. 그러나 다케우치는 1966년에 들어와 일본근대사연구자인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1913~2001)²⁷⁾ 및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 1914~2011)²⁸⁾, 그리고 조선사 전문의 동양사학자인 하타

25) 姜在彦, 「朝鮮問題における内田良平の思想と行動—大陸浪人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一典型として」, 『歴史学研究』 307, 青木書店, 1965.12. 22쪽.

26) 中瀬寿一, 「竹内好編『アジア主義』—新植民主義的進出のモラリッシュ・エネルギーとしての現代的機能」, 『朝鮮学報』 36, 朝鮮学会, 1965.10, 163쪽.

27) 다케우치가 반론의 대상으로 한 이노우에의 논고는, 「日本の「近代化」の特徴とその歴史的條件」(『一九六四年北京科学シンポジウム歴史部門参加論文集』, 『文化評論』 40, 新日本出版社, 1965.2. 에 수록)이다.

28) 다케우치가 비판의 대상으로 한 도야마의 논고는, 「明治維新研究の社会的責任」(『展望』, 1965.12), 「日本近代と東アジア」(『世界』, 1966.1)와 「学問と思想と政治」(『展望』, 1966.9)이다. 이 두 논고에 대해 다케우치는 “라이샤위의 학설은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했지만 중국의 근대화는 실패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문제설정이다. 이는 강좌파(講座派)이론에서 식민지문제만을 뺀 것과 거의 동일하다. 도야마씨의 두 논문은 여러 세밀한 부분은 있다고 해도 골자는 식민지문제를 재투입하는 것으로 라이샤위의 학설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저 이 문제의 설정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전후 20년간 일관된 나의 주장이다. 잠정적으로 그것을 정식화(定式化)하면, 중국의 근대화는 성공했지만 일본의 근대화는 실패했다. 그것은 왜인가 하는 문제설정이 될 것이다”(『学者の責任について』, 『展望』 第96号, 筑摩書房, 1966.6, 『全集』 8, 269~270쪽)고 평하고 있다.

다 다카시(旗田巍, 1908~1994)로부터의 비판에 대해 반응을 표시하고 있고, 이로부터 이들 역사학자 진영의 논박에 대한 다케우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해 다케우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아시즈(葦津一신도사상가인 葦津珍彦(아시즈 우즈히코, 1909~1992 -인용자) 씨의 책(『대아시아주의와 도야마 미쓰루 『大アジア主義と頭山満』』, 1965-인용자)은, 나는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이노우에교수나 하타다교수보다는 학문적이다. 또한 권말 부록에 구와바라 다케오(桑原武夫)씨와 가이즈카 시게키(貝塚茂樹)씨의 역사해석에 대해서 중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것을 논단이 다루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또 하나, 이 부분에서의 나의 의문은 내가 언제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를 “아시아연대(連帶)의 선각자”로 다루었는가 하는 것이다. 기억에 없는 일이다. 하타다 교수는 내 글을 읽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의 알팍함으로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중략) 다루이는 ‘침략’ 혹은 ‘연대’로 새길 수 있지만 우선 침략으로 새기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정도의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음으로, 독자의 혼란을 고려해서 생략하기로 한다. 앞에 인용한 분류의 마지막에 “어쨌든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문제의 책이”라고 교수는 쓰고 있지만, 이는 교수 자신의 심경의 토로일 것이다.²⁹⁾

뒤이어 다케우치는 “나의 글을 이처럼 오독하는 사람의 고증을 그대

29) 「学者の責任について」, 261~262쪽. 다케우치가 반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타다의 글은 「대동아합방론과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大東亞合邦論と樽井藤吉』, 『エコノミスト』, 1965.7.27)와 「다루이 도키치의 조선관-조선병합의 전야」(『朝鮮研究』 43, 1965. 9)이다. 모두 『日本人の朝鮮観』(勁草書房, 1969)에 수록되었다. 이 책에는 1965년 『日本と朝鮮』(アジア・アフリカ講座3)에 발표된(원고는 1964년 7월 작성) 「일본인의 조선관(日本人の朝鮮観)」이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고, 이 글의 참고문헌의 하나로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의 전망」이 있다. 이처럼 「아시아주의의 전망」은 하타다 등으로 하여금 다루이 도키치와 『大東亞合邦論』 등에 관한 논의를 이끈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로 신뢰해도 좋을지 어떨지? 이러한 고증을 공유재(共有財)로 인정하는 것에 나는 역시 유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³⁰⁾고 하며, “내 느낌을 말하면 역사가는 문헌의 독해가 무르다. 문자의 표면만을 훑고 있다. 문장 내면의 숨은 뜻까지 철저하게 독해하기를 바라지는 않으나, 하다못해 문장 내용 정도는 이해하길 바란다”³¹⁾고 말한다. 이 언급으로 보아 다케우치는 기본적으로는 “문자의 표면만”에 머무르는 역사가들의 문헌 독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다케우치는 “연대와 침략의 이분법을 채용하는 교수(하타다 다카시(旗田巍)를 이름-인용자)의 입론 내용에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³²⁾고 전제한 뒤, 아래와 같이 논한다.

나는 거꾸로 연대와 침략의 이분법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아시아주의』 해설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도야마 씨(및 이노우에, 하타다 양 교수)와 나와는 문제 설정방식이 다르다. 나의 문제는 침략과 연대의 결합의 여러 유형을 생각하는 데 있다. 유형을 생각한 다음에 어찌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도야마 씨가 기대하는 “현실적 의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적 의의는 크리라 본다. 그런데 없다면 고무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대로 신을 믿는다. 도야마 씨의 신이 가톨릭적인 것과 비교하면 내 쪽은 보다 위기신학적인 신이고, 이것이 내 당파성이다. 아마 이는 추궁해 들어가면 인간성 및 역사관(또는 역사像)의 차이에 도달할 것이다. 도야마씨에 있어서 인간은 동기와 수단의 구별이 명료한, 타자에 의해 통제로 파악될 수 있는 투명한 실체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유동적인, 상황적으로 밖에 자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도 또한 도야마씨에게는 중압적

30) 「学者の責任について」, 265쪽.

31) 위의 글, 271쪽.

32) 위의 글, 266쪽.

인 소여(所與)이지만, 나에게서는 가역적인, 분해 가능한 구축물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³³⁾

다케우치는 그의 「아시아주의의 전망」에서도 “대저 ‘침략’과 ‘연대’를 구체적 상황 하에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큰 문제이다”³⁴⁾고 말한 바 있다. 위 문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케우치는 도야마와 같은 역사가가 추구하는 “현실적 의의”가 아니라 “미래적 의의”를 추구한다는 발언이다. 그러나 그 “미래적 의의”는 ‘소여’로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불변의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항상 “유동적인, 상황적인” 형태로밖에 획득될 수밖에 없는 류의 것이다. 이를 다케우치는 “위기신학적인” 태도라고 스스로의 입장을 표현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다케우치에 있어 ‘아시아주의’는 이미 역사적인 판단이 내려진 과거의 반성 위에 위치된 것이 아니라, “미래적 의의”를 위한 “가역적인, 분해 가능한 구축물”로서 존재하는 ‘사상’적 유산이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전후에 있었던 가지무라의 다케우치 비판을 다시 다룬 글이 2006년에, 역사사회학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나카노 도시오(中野敏男, 1950~)에 의해 발표되었다.

다케우치는 일본의 국책이 침략적이었던 시기를 “중국혁명에 대한 간섭과 만몽 점령의 시기만”에 고정하는 시야의 한정을 굳이 하고 있다. 이런 변은 일본의 침략을 그 식민주주의로부터 생각해보면 완전

33) 위의 글, 272~273쪽.

34) 「アジア主義の展望」, 11쪽. 이어서 다케우치는 “겐요사(玄洋社)의 전향을 다루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조선문제의 경우, 결과는 분명히 ‘일한병합’이라는 완전한 침략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러시아나 淸國의 ‘침략’을 공동 방위한다는 한 측면도 ‘사상’으로서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또 ‘일한병합’이라는 결과를 두고 玄洋社나 黒竜會는 큰 불만을 가졌고 일본정부를 탄핵한 것은, 본 책에서 수록된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의 『일한합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논한다.

히 그것에 역행하는 논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다케우치는 일본의 국책이 “명백히 침략적”으로 보여지는 시기와 장소를 인용과 같이 굳이 한정하는 것이다. 이 같이 논의를 진행시켜간다면 침략성을 묻는 논의 안에서 조선의 식민지화의 문제는 이윽고 누락되고 말 것이다. 다케우치 논의에 있어서의 조선의 결락은 곧잘 지적되는 바이나 그것은 다케우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조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논의 구조에** 조선의 식민지화문제가 결락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중략)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문맥에서는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 그곳을 뛰쳐나온 침략주의적인 아시아주의자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 의해 다케우치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위험스런 도박에 차질을 빚고, 그 함정에 빠져버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강조는 원문).³⁵⁾

나카노는 여기서 근년의 ‘식민지주의’ 연구³⁶⁾ 관점에 따라 가지무라의 다케우치비판을 재평가한 뒤,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의 “논의의 구조에 조선의 식민지화문제가 결락되어 있음”을 새삼 문제 삼는다. 즉 나카노는 다케우치의 “논의의 구조”가 결국은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문맥”상 “침략주의적인 아시아주의자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해버린”, ‘방법으로서의 아시아’가 가지는 ‘차질’과 스스로의 ‘함정’에 대해 거론한다. 나카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케우치는 아시아주의의 심정적 출발점을 재평가하려고 하였지만, 여기에서 가지무라는 침략과 식민지주의와 마주하고 그것에 불만

35) 中野敏男, 「「方法としてのアジア」という陥穽-アジア主義をめぐる竹内好と梶村秀樹の交錯」(『前夜』8, 影書房, 2006.夏), 214쪽.

36) 나카노는 2005년에 출간된 『継続する植民地主義—ジェンダー/民族/人種/階級』(東京: 青弓社)에 공저자로 참가하고 있다.

을 품고 고민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휩쓸려간 민중의 경험을, 그곳에서 느꼈을 고통, 혹은 자신의 형편(주체적 이유)에 따라 타자의 고통에는 무자비하게 대해버린 대해 있을 수 있는 회한을 소중한 것으로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중략) 다케우치와 가지무라라는 두 사람의 사색자의 문제의식이나 사고방식도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들이 각기 대상으로 한 ‘중국’과 ‘조선’이라는 장에,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문제를 생각하는 위에서의 위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조선이라는 토포스**가 일본의 식민지주의를 특히 그 심부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질(質)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강조는 원문).³⁷⁾

나카노는 위에서, ‘아시아주의’라는 “침략과 식민지주의”에 노출되었던 “민중의 경험”과 ‘회한’을 사정(射程)에 둔 가지무라의 ‘민중사적 시점을 높이 평가한다.’³⁸⁾ 하지만 다케우치와 가지무라는 “중국과 ‘조선’이라는 장”을 자신의 연구 중심으로 하였고, 따라서 가지무라와는 달리 다케우치는 “조선이라는 토포스가 일본의 식민지주의를 특히 그 심부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질(質)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선입관에 의한 도식적 평가이자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케우치의 생각과도 차이가 있다. 즉 나카노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이 ‘사실(史實)로서의 조선의 ‘식민지주의’는 애초부터 문제 삼지 않았다고

37) 中野敏男, 「植民地主義批判と朝鮮というトポス—アジア主義をめぐる竹内好と梶村秀樹の交錯 その2」, 『前夜』 9, 影書房, 2006. 가을, 219~223쪽. 이 밖에 나카노의 다케우치 관련 논문으로서, 「民族解放革命」と「民族の魂の解放」(『前夜』 第1期(6), 影書房, 2006 겨울호)가 있다.

38) 다케우치의 경우에도 ‘민중’에 대한 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 초반에 다케우치는 “민중은 이미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위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대중조선’의 사고는 잘못되어 있다. 민중은 끊임없이 형성되어야만 하는 존재이며, 그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민중 자신이다”(『日本の民衆』, 『現代史講座』 2, 1953.6, 『国民文学論』, 東京大学出版会, 1954, 15쪽)고 말하고 있다.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카노의 이 같은 다케우치 비판은 이미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일본의 조선사연구자 및 역사학연구자들의 비판의 논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³⁹⁾

IV. ‘대항축’으로서의 ‘아시아주의’

『다케우치 요시미론－혁명과 침묵』(1973)의 저자인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 1946-2014)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의 전망」이 발표되었을 당시의 분위기를, “젊은 우리들은 다케우치의 「근대의 초극」이라는 논문과 함께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우익이라 불리는 사상가들의 개별연구도 이 논문이 그 촉발의 한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고 회고한 바 있다. 이어서 마쓰모토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1963년에 쓰여진 「일본의 아시아주의」(당시는 「아시아주의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인용자 주)라는 논문을 4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평가의 어려움은 이 논문이 제기한 가설이나 문제가 낡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아시아주의라는 사상개념을 일종의 가설로서 제시하고 있고, 그 가설이 가진 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역사적인 실증이나 보강을 하도록 할 만큼 매력적이며 또 신선하다. 분명히 이 논문은 그 완성도에

39) 이 밖에 현역의 재일한국조선인 역사학자인 조정달(1954-)은 “다케우치는 아시아를 집요하게 말하면서 오로지 일본적 문맥에서 아시아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아시아 여러 지역·여러 국가의 역사적 내재성에 있어서 아시아를 파악하지 못했던 사상가는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다”(趙景達, 「日本/朝鮮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相克」, 『情況』 378권2, 情況出版, 2007.4, 64쪽)고 비판한다. 나아가 “아시아는 ‘아시아의 아시아’이지 ‘일본의 아시아’가 아니다”(77쪽)고 논한다.

40) 松本健一, 『竹内好「日本のアジア主義」精読』, 東京: 岩波書店, 2000, 90-91쪽.

있어서 큰 결함이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우리에게 큰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이 논문이 전후사상이나 아카데미즘에 의해 터부시되어 논하기를 금해온 테마의 봉인을 열었기 때문이다. 즉 전후 일본은 미국 민주주의에 동화됨으로써 탈아입구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그 전후 일본에 대한 극약이다. 이 논문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기타 잇키(北一輝)연구를 시작하거나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전(伝)을 쓰거나 하는 일도 없었을 게 틀림없다. 생각건대 1963년에 쓰여진 이 논문을 40십년 가까이 흐른 현재에 평가하는 어려움은, 다케우치 요시미가 ‘아시아주의’라는 사상개념을 추출하기 위해 본 ‘아시아’의 실체가 이 40년 정도 사이에 우리들 눈 앞에서 크게 변모하였기 때문이다.⁴¹⁾

마쓰모토의 위 문장은,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의 전망」이 전후인 1963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의 ‘사건’적 담론으로 기능해왔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케우치의 이 논고가 야기한 임팩트는, “전후사상이나 아카데미즘에 의해 터부시되”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탈아입구의 연장선상에 위치”했던 전후 일본의 담론 공간에 대한 ‘극약’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마쓰모

41) 竹内好, 「日本のアジア主義」精読, 91~92쪽. 스즈키 다다시(鈴木正, 1928~)의 경우에는 “아시아문제를 전후에 다시 제기한 논자는 단순한 부활론의 우익을 제외하면 다케우치 요시미이다. 게다가 좌우 양익(兩翼)을 다각적으로 시야에 넣어, 뛰어난 우익인사에 대한 편견 없는 지적 교류에 입각한 근대 일본의 특이성을 끄집어낸 입론이 인상에 남아 있다”(鈴木正, 「序章 아시아主義とは何か—竹内好を道標にその可能性を探る」, 『アジアと日本—平和思想としてのアジア主義』, 東京: 農山漁村文化協会, 2007, 7쪽)고 말한다. 한편 2007년에 한국어로도 번역된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일본어는, 『竹内好という問い』, 東京: 岩波書店, 2005)의 저자 쉰찌(孫歌)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을 “역사를 새로 씌으로써 구성하려고 한, 침략을 제재할 수 있는 문명으로서의 ‘아시아주의’”(孫歌, 「解説—今, なぜ竹内好なのか」(丸川哲史・鈴木将久 編, 『竹内好セレクション—日本への/からのまなざし』,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2007초판 2006년, 376쪽)라 평가한다. 그러나 “문명으로서의 ‘아시아주의’”라는 용어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

토는 「아시아주의의 전망」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케우치의 결론 방식으로는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가 오버랩되어 버린다. 물론 그것은 몇 번 언급한 것처럼 거의 중첩되는 것이지만, 중첩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누락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나의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불만이다”⁴²⁾고 지적한다. 마쓰모토가 문제 삼는, 「아시아주의의 전망」에서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가 오버랩되”는 곳이란 예를 들면,

아시아주의가 우익에 독점되게 된 계기는 우익과 좌익을 분리하는 시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기타 잇키가 헤이민샤(平民社)와 고쿠류카이(黒龍會)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던 시기이다.⁴³⁾

사이고(西郷—西郷隆盛(1828~1877)－인용자 주)가 반혁명이 아니라 거꾸로 사이고를 추방한 메이지정부가 반혁명으로 전화되어 갔다. 이 사고방식은 쇼와(昭和)의 우익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메이지내셔널리즘 내에서 싹튼 것이었다. 그것을 좌익이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익에 계승되었을 뿐이다. (중략) 사이고를 반혁명으로 볼지 영구혁명의 심벌로서 볼지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논의 상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서로 관련되지 않고서는 아시아주의는 정의내리기 어렵다. 그것은 거꾸로 아시아주의를 매개로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들의 사상적 위치를 나는 이 같이 생각한다.⁴⁴⁾

라고 다케우치가 언급한 부분이다. 하지만 마쓰모토가 “40년 가까이 흐른” 오늘날에 다케우치 논문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시아의

42) 松本健一, 『竹内好論—革命と沈黙』, 東京: 第三文明社, 1975, 226쪽.

43) 「アジア主義の展望」, 52쪽.

44) 위의 글, 62-63쪽.

실체가”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케우치가 제시한 ‘아시아’는, 기본적으로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주의의 전망」에서도 관통되는 것이었다.

마쓰모토가 당시의 다케우치 ‘아시아주의’론과 금일의 ‘아시아’의 시대적 양상 간의 갭을 논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사상사가인 고타스 노부쿠니(高田宣邦, 1933~)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다케우치가 팽창주의에 대한 그 같은 변명을 통해 굳이 일본근대사에 아시아주의라는 한 가닥의 대항축을 그은 것은, 그의 이 독불장군식의 사상적 태도에 따른 것이다. 정한론에서부터 ‘대동아전쟁’에 이르는 일본근대사의 이중화는, 다케우치에 의해 그어진 아시아주의라는 대항축에 의해 처음으로 성립한다. 아시아주의란 일본근대사를 규정하는 중심축에 대해 다케우치가 그은 대항축이다. 중심축이 무엇인가는 이와 마주하여 그어진 대항축과 상관해서 규정된다.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연대에 선 아시아 국가로서의 일본의 자립적인 국가 형성을 추구하는 아시아주의라는 대항축을 그음으로써, 아시아의 지도적 국가로서 일국적으로 유럽 류의 선진국화를 오로지 추구하는 일본의 도정이 근대 일본의 국가 형성을 관통하는 중심축으로서 한층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다케우치의 논설인 「근대의 초극」과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의해 일본근대사에 의해 일본근대사에서의 아시아주의라는 대항축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그 아시아주의를 ‘다케우치가 그은 대항축’이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내가 아시아주의를 ‘다케우치가 그은 대항축’이라 말함으로써, 아시아주의를 일본근대사에 있어서의 사상실체로서 전제하는 관점을 취하지 않음도 밝혀야 한다. 아시아주의란 다케우치가 그러한 것처

럼, 저항하며, 독불장군식 태도로써 일본의 근현대사에 그은 사상적인 대항축이다. **아시아란 방법적 개념이라 다케우치는 말하지만, 아시아주의도 또한 비실체적인 방법적 개념이다.** 다케우치가 아시아주의라는 대항축을 그음으로써 일본근대사는 처음으로 대립 모순하고 갈등하는 이중성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⁴⁵⁾

고야스는 다케우치에 있어서 ‘아시아’는 “방법적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주의’도 또한 일본 근대사를 상대화하는 ‘대항축’으로서 철저히 ‘실체’가 아닌 ‘방법’이었다고 해석한다.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도 또한 비실체적인 방법적 개념이”라는 고야스의 이 지적이 시사하는 바는,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이 우리들로 하여금 단지 일본근대사의 과정을 ‘이중’적으로 독해하는 곳으로 안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나아가 ‘아시아주의’도 또한 ‘한국’이라는 토포스에서 말해가는 방식, 혹은 말해야하는 의미를 고민하게 한다.

V. 한국에서의 ‘포스트 다케우치’ 담론의 번역이 시사하는 것

‘한국’이란 장소에서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아시아주의’ 논의가 가지는 의미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로는 ‘실체로서의 아시아’ 혹은 “아시아적인 것”으로 다케우치를 수정하려는, 소위 ‘포스트 다케우치’적인 담론의 한국에서의 번역 출간과 그 관련 논의들일 것이다. 그 ‘포스트 다케우치’ 담론을 전개한 논자로서는 일본의 중국사상사가인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1932~2010)와 문학평론가인 가라타니 고진(柄谷

45) 子安宣邦, 『「近代の超克」とは何か』, 東京: 青土社, 2008, 227~228쪽.

行人, 1941~),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활동해온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1948~)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수정적으로 비판한 대표적 인물이 미조구치로, 그는 다케우치를 의식한 서명이 붙은 『방법으로서의 중국』(1989)⁴⁶⁾으로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러한 관점이 연속적으로 표명된 『중국의 충격』이 2009년(일본에서는 2004년에 출판)에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의 한국어 공역자는 이미 다케우치의 『일본과 아시아』⁴⁷⁾의 번역(2004)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저서 간의 입장 차이를 인식한 위에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어쨌든 『중국의 충격』은 『방법으로서의 중국』을 먼저 읽는다면, 다케우치와의 관점 차이와 그에 따른 미조구치의 “중국의 근대”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충격』의 첫 장인 「〈중국의 근대〉를 보는 시점」에서, 미조구치는 다케우치의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魯迅을 실마리로 하여」⁴⁸⁾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같은 자기부정적인 동경(憧憬) 구조가 우리들의 반탈아적·반근대적인, 또는 아시아주의적인 주체를 주관적인, 따라서 취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다. 우리들은 중국의 근대를 역사적으로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일본의 근대를 역사적으로 객관화하고 있지 못했던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 경향이 기대고 있었던 것이 다케우치씨의 전개의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였다.⁴⁹⁾

46) 이 책에는 서명이 된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장이 별도로 있다.

47) 『日本とアジア』는 1966년에 <竹内好評論集第3卷>으로서 筑摩書房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48) 「中国の近代と日本の近代—魯迅を手がかりとし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編, 『東洋的社会倫理の性格』<『東洋文化講座』第3卷>, 白日書院, 1948. 『日本とアジア』<竹内好評論集第3卷>에 수록).

미조구치는 “전중·전후교육을 받은 중국연구자”⁵⁰⁾들이 “아시아주의적인 주체를 주관적인, 따라서 취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배경으로 다케우치의 상기 논문을 꼽는다. 다시 말해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적인 주체”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케우치가 “중국의 근대를 역사적으로 객관화하지 못”했다고 미조구치가 주장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그의 “중국의 근대”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중국의 근대는 바로 그 자신의 전근대를 미리 일찍부터 모태로 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중국의 전근대의 역사적 독자성을 내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반전제(反專制)의 공화혁명이라는 일본에서는 보여 지지 않았던 ‘구(舊)사회=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혁’도 거칠은 표현을 굳이 쓰자면, 대동(大同)에 있어서의 16, 17세기 이래의 역사적 과제 의, 국민적 혹은 인민적 계승이고 따라서 그 양상도 중국적으로 독자적이지 않을 수 없다.⁵¹⁾

미조구치는 현 “중국의 근대”는 “16, 17세기 이래의” 중국의 “역사적 독자성”의 전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미조구치의 “중국의 근대”관은, 『중국의 충격』에서는 일본의 ‘근대’와의 관련 속에서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중화문명권을 벗어났다고 하는 담론이,

49)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方法としての中国』,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9. 6쪽. 이 글은 1980년 10월에서 81년 1월 사이의 『UP』, 東京大学出版会.에 처음 실렸다.

50) 위의 글, 5쪽.

51) 위의 글, 15-16쪽. 미조구치는 이어서, “유럽근대가 유럽전근대와 불가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도 각각의 전근대의 독자적 구조와 불가분하다는, 역사적·풍토적인 상호적 독자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볼 수가 없었다”(29-30쪽)고 논한다.

혹시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실태에 들어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거의 모든 일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본의 중국관심과 중국의 일본관심의 비대칭적 관계는 실은 중화문명권시대부터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구조의 완고한 자취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이다.⁵²⁾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근대과정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온 ‘탈아’적 역사관, 달리 말하면 메이지유신을 ‘탈아입구’의 근대의 시작으로 하는 일본중심적, 일본 일국적인 근대사관을 바꾸어, 유형이 다른 여러 나라의 잡거적인 중화문명권의 관계구조의, 16세기 이래의 장기적인 변태의 과정으로서 부감(俯瞰)하는 역사관에 따라 아시아의 근대를 다원적·다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⁵³⁾

여기서 미조구치는 일본의 ‘근대과정’이 “자본주의 근대”화의 결과라는 종래의 관점과는 달리, 결국은 “중화문명권의 관계구조의, 16세기 이래의 장기적인 변태의 과정”의 하나임을 명백히 한다. 즉 일본의 근대과정을 역사적으로 유지되어온 “중화문명권의 관계구조” 아래의, “아시아의 근대”의 “다원적·다극적” 전개에 하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중화문명권시대부터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구조”는 현재까지도 엄연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미조구치는 주장하는 것이다. 미조구치의 이 같은 확신은 이슬람문명권이나 유럽문명권과는 달리 “중국문화권의 장기안정성은 지세

52) 溝口雄三, 「序 “中国の衝擊”」, 『中国の衝擊』,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4, 7쪽. 또 미조구치는 “일본만이 중화문명권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주의화가 빨랐을 뿐이라는 사실은, 이상 언급해온 대로다. 자본주의화 했다는 것이 바로 서구문명권으로 진입했다는 것, 혹은 중화문명권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저 문명권 밖이나 안이나 하는 사고 자체가 실은 문명권이라는 관념을 실제화한 사고로 비현실적이다”(5쪽)고 논한다.

53) 위의 글, 13쪽.

(地勢)적으로, 관계구조적으로, 내부구조적으로 풍부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단순히 ‘정체’로 보는 견해는 결코 종합적·다원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장기안정성·연속성은 플러스의 이미지로 바뀌는 것이다⁵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후 미조구치는 다케우치를 재고하는 2006년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방법으로서의 ‘중국독자의 근대’—명말청초에서 신해혁명으로, 역사의 궤적을 더듬다」에서, 상기 두 저서에서 전개한 논지를 명료한 다케우치비판과 함께 제시한다. 즉 “중국독자의 근대”를 밝히는 일이, ‘방법’으로서 있어야함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문제는 그가 그 중국독자의 근대를 역사의 궤적으로서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다케우치)의 이미지에는, 원상(原像)은 역사의 궤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혁명’, ‘정신혁명’으로서, 즉 운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으로서의, 영구혁명으로서의 중국근대. 그러나 운동으로서의 근대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사상을 낳는 원천으로 될 수 있지만, 운동이기에 즉 궤적이 보이지 않는 운동이기에 역사의 접점을 잃어버렸습니다.⁵⁵⁾

그러나 다케우치의 이 “사상으로서의 근대”는 “역사로서의 근대”를 결여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독자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아마도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 실체로서의 근대화과정이라는 것을 중국의 역사에서 찾는 것은 무리라면, 다만 “주체형성의 과정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체형성의 과정”, 즉 사상으로서의 근대는 있다

54) 「中国近代の源流」, 『中国の衝撃』, 108쪽.

55) 인용은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独自の近代』—明末清初から辛亥革命へ, 歴史の軌跡を辿る」, 鶴見俊輔・加々美光行 編, 『無限のナショナルイズムを超えて—竹内好を再考する』, 日本評論社, 2007, 28쪽.

는 것이 다케우치의 “중국독자의 근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국에서의 역사의 실체를 간과하는 이야기이기에 다케우치에 있어서의 근대 원리는 중국의 실체를 떠난 자유, 평등, 권리 등의 ‘서양가치’였습니다. 중국독자의 근대가 제시되지 않은 채로 다만 서양의 원리만이 그곳에 존재하고, 아시아는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다시 포용함으로써만 보편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⁵⁶⁾

미조구치는 여기서 다케우치와는 달리 ‘실체’, 즉 “역사의 궤적”으로서 명확히 존재해온 “중국독자의 근대”를 강조한다. 즉 “역사로 하여금 사상을 말하게 하는 것, 역사의 실체가 사상을 발출한다”⁵⁷⁾는 입장에서 서 있다. 미조구치는 이런 관점에서 “아편전쟁을 근대의 시작으로 하는 코스 이전, 16세기에서 17세기의 명말청초에 중국에는 중국독자의 역사의 전개가 확인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략) 비유적으로 말하면 왕조제(王朝制)의 역사는 굵은 수목의 뿌리이며, 16세기에서 17세기에 보여지는 변화가 그 뿌리의 심부에서 발하는 변화인데 비해서, 아편전쟁 이후의 변화는 겉보기에는 소연하나 실은 변화는 표층의 일부에만 보여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다케우치에 따라서 말하면, 아편전쟁 이후의 변화가 외발적인데 비해서 명말청초의 그것은 내발적이라 할 수 있”⁵⁸⁾다고 논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조구치의,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의 수정적 독해 혹은 오독에 의한 “중국독자의 역사” 내지 “중국독자의 근대”론이 가지는 문제점은, “중화문명권시대부터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구조”

56) 위의 글, 40~41쪽. 다케우치를 ‘서양가치’를 중시한 소위 ‘서양적 근대주의자’로 평하는 것은, 미조구치가 서구적 근대에 대한 그의 “중국독자의 근대”론을 펼치기 위한 전략적 수사가 된다.

57) 위의 글, 43쪽.

58) 위의 글, 30쪽. 미조구치는 이런 ‘내발적인 “중국독자의 근대”의 근거로, “16세기에서 17세기의 이 시기에” 보이는 ‘중국적인 “지방자치’를 들고 있다(30~36쪽).

에 대한 고정적인 시선과, 그에 따라 “아시아의 근대”를 “중화문명권의 관계구조” 아래서의 “다원적·다극적” 전개로 해석하려는 지점으로 수렴된다. 즉 이 논지는 ‘중심’으로서의 ‘제국’ 중국을 인정한 다음 스스로를 ‘주변’에 두게 되는, “일원적 다양체”⁵⁹⁾ 방향으로 귀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근래 이러한 ‘제국’으로서의 중국을 역사로부터 재구성적으로 호출하는 작업이 일본에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다. 그 작업이 바로 『세계사의 구조』(2010)⁶⁰⁾와 『세계사를 읽는다』⁶¹⁾(2011)이다. 가라타니는 이후 5회에 걸친 「중국에서 읽은 『세계사의 구조』(『현대사상』, 靑土社, 2013. 5-10)⁶²⁾의 연재를 묶어, 이를 『제국의 구조—중심·주변·아주변(亜周辺)』(2014)로 출간하였다. 한국에서는 앞 두 저서가 2012년 12월과 2014년 3월에 각각 번역 출간되었고, 『제국의 구조』도 곧 번역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노정되는 일본의 한 ‘진보적’ 지식인에 의한, 중국에서 발화된 중국 ‘제국’론이란 다음과 같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근대자본주의에 고유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을 재구축하는 일입니다. 만약 중국에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가 들어선다면 소수민족이 독립할 뿐만 아니라 한족도 지역적인 여러 세력으로 분해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적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사태를 초래하는 정권은 민의의 지지를 받지 못 합니다. 즉 천명=민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

59) 子安宣邦, 『帝国が民主か—中国と東アジア問題』, 東京: 社会評論社, 2015, 89·95·102.

60) 柄谷行人, 『世界史の構造』, 東京: 岩波書店, 2010.

61) 柄谷行人, 『「世界史の構造」を読む』, 東京: インスクリプト, 2011.

62) 이 연재는 가라타니가 『세계사의 구조』의 중국어판 출간에 맞추어, 중국의 칭화(淸華)대학에서 행한 강의에 의한 것이다. 이 강의에는 한국에서도 수권의 저서가 번역 소개된 칭화대학의 왕후이(汪暉, 1959-)도 매회 참석하였다.

니다.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방향을 취하는 것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비정상적입니다. (중략) 그 규모에서 보자면 중국은 각지의 국가연합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즉 국민국가의 관념을 넘어,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제국’을 창출하는 방향을 향하는 일입니다. ⁶³⁾

가라타니는 그의 ‘세계사’론에서의 ‘교환양식론’에 입각하여 ‘근대자본주의’ 및 현대의 ‘제국주의’와는 구별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제국’(의 개념)을 ‘재구축’할 것을 종용한다. 중국이라는 “국가연합체를 초월”하는 자산을 통해, “국민국가의 관념을 넘어”서는 “제국”을 창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제국’의 ‘중심’을 대상으로 한 ‘제국아주변’의 지식인으로서의 가라타니는 또한 “중국의 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국이란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⁶⁴⁾고 명언한 뒤, “유교 혹은 도교나 불교에 의해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제국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변모했다. 따라서 제국의 원리가 오히려 중요하다. 다민족을 어떻게 통치해왔는가 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 없이는 종교나 사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⁶⁵⁾고 논한다. 즉 예를 들면 ‘유교’란 것도 “제국 하에서만 존재”하는, ‘제국의 유교’⁶⁶⁾라는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의 주변부로서의 일본사”라는 각도에서 ‘유교모델’에

63) 柄谷行人, 『帝国の構造—中心・周辺・亜周辺』(東京: 青土社, 2014, 171-172쪽.

64) 柄谷行人·丸川哲史, 「帝国・儒教・東アジア」, 『現代思想』42-4(青土社, 2014, 3), 31쪽.

65) 위의 글, 40-41쪽. 가라타니는 또 “현대의 중국도 민족국가주의=제국주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본래 존재했던 제국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44쪽)고 말한다.

66) 교야스 노부쿠니는 가라타니의 이러한 “유교’의 ‘세계=제국’성의 주장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지식을 일원적인 ‘제국’적 문화로서 포섭해가는 ‘제국’적 이데올로기의 선구적 주장이”(『帝国が民主か—中国と東アジア問題』, 23쪽)라 비판한다.

의한 “일본사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견해가 미야지마 히로시에 의해 제기되었다.

일본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상한다고 할 때 그 전환의 기축이 되는 것은 유교 혹은 유교모델에 대한 인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주변적 위치에 처해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의 최대 근거는 일본의 유교모델 거부에 있다는 점,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도 유교모델로부터 일본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더 나아가 글로벌리즘이 석권하는 오늘날 유교모델 수용의 역사적 경험의 부재라는 조건이 일본의 진로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⁶⁷⁾

그러나 이 글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축”으로서의 “유교 혹은 유교모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서사인가? 미야지마는 이밖에도 “보편적인 사고회로”로서의 ‘유교’, “동양을 일체로” 하는 ‘공통분모’로서의 ‘유교’,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유교’, “유교적 문명주의”, “유교모델을 수용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 등등의 서사를 발화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주변부”가 역사적으로 중화제국의 ‘일원적’인 ‘제국적 유교’ 질서 내부에 스스로를 위치시켜왔다고 하는 역사 표상론이다. 미야지마는 “일본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 중국과 그 ‘주변부’에 의해 구성된 ‘일원다양체’⁶⁸⁾적인 ‘유교모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제고

67) 宮嶋博史, 「日本史認識のパラダイム転換のために—「韓国併合」一〇〇年にあたって—, 『思想』 1029, 岩波書店, 2010,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한일병합 100주년에 즈음하여—, 『창작과비평』 통권148호, 2010.6, 436쪽. 관련 논문으로, 宮嶋博史, 「儒教的近代としての東アジア」『近世』, 『岩波講座・東アジア近現代通史』, 東京: 岩波書店, 2011를 참조.

68) 『帝国か民主か—中国と東アジア問題』, 89・95쪽.

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⁶⁹⁾ 현재의 “일본의 진로”에의 한계적 상황이 “유교모델 수용의 역사적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태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조구치가 명말청초에서 시작하는 ‘지방자치’적 전통에 의한 “중국독자의 근대”의 생명력을 주장하였다면, 미야지마는 14세기에 시작되는 “유교모델의 확립과 그 보급”에 의한 “송조(宋朝)적 근대”⁷⁰⁾에의 인식 제고를 논한다. 이 같은 양자의 주장은 그 내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구(유럽)적 근대’에 대한 ‘세계사적인 근대관의 “패러다임 전환”을 그 공통의 기본 인식으로 하고 있다.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수정한 ‘방법(즉 실체)으로서의 중국’을 통한 21세기형의 이 같은 ‘근대의 초극’ 담론은 21세기 중국의 ‘제국’적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제국’ 개념의 성립을 논하는 가라타니의 ‘제국’론과 함께 그 시기를 전후하여 발화되고 있는 것이다.⁷¹⁾ 고야스는 가라타니의 ‘제국’ 개념 주장을 두고, 최근의 타이완의 ‘해바리기학생연합(太陽花學運)’의 입법원 점거 및 홍콩 학생들의 ‘민주화데모(우산혁명)’와 같은 “현대 중국에서의 전체적 당(黨)=국가권력”에 의한 “제국주의’적 종속화”에 대한 저항을 은폐하는 서서라 비판한 바 있다.⁷²⁾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종속화”에 저항하면서 그 자생적 생

69) 미야지마의 ‘패러다임전환’론에 한발 더 나아가, ‘문명’론적 역사 ‘패러다임전환’을 논하는 요나하 준의 『중국화 하는 일본—동아시아 문명의 충돌 1천년사』(페이퍼로드)도 2013년 7월(与那覇潤, 『中国化する日本—日中「文明の衝突」一千年史』, 東京: 文藝春秋, 2011)에 번역, 출간되었다. 본고는 이런 류의 책들이 번역되어 수용되는 현 한국의 담론 공간을 문제시하고 있다.

70) 송대에서 중국의 ‘근대’를 보는 소위 ‘송조 근세’론을 일찍이 주장한 이는, 교토(京都)제국대학의 ‘지나(支那)사학자’였던 나이토 고난(内藤湖南, 1866-1934)이었다. 이에 관한 근래 일본에서의 연구서에, 山田智·黒川みどり編, 『内藤湖南とアジア認識—日本近代思想史からみる』(東京: 勉誠出版, 2013)가 있다. 여기에는 줄고, 「조선을 도외시하고 ‘지나(학)’을 논할 수 있는가—나이토 고난의 ‘일본문화 서술’에 보이는 조선인식을 둘러싸고」(「朝鮮をぬきにして「支那(学)」は語れるか—内藤湖南の「日本文化」叙述にみられる朝鮮認識をめぐって」)도 수록되어 있다.

71) 『帝国が民主か—中国と東アジア問題』, 84-85쪽.

72) 『帝国が民主か—中国と東アジア問題』, 22-23쪽.

존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생긴 ‘아시아 민중’의 ‘대항운동’⁷³⁾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라타니의 ‘제국’ 개념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라타니의 이런 논지가 중국 및 그 주변부에 의해 구성되는, “아시아적인 것의 실체화”를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은 새삼 강조될 필요도 없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주의)를 보정, 수정하려는 상기와 같은 ‘포스트 다케우치’ 담론(즉 ‘실체로서의 아시아’)은, ‘대항축’으로서의 (아시아)연대를 위한 언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처럼 ‘포스트 다케우치’적 담론이 번역, ‘수용’되는 현 한국의 담론 공간에서,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제고⁷⁴⁾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즉 ‘한국’이라는 토포스에서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재검토하는 일은, 현재도 식민지 경험과 그에 따른 ‘식민지주의’의 ‘유산’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의 다원성”을 향한 ‘대항축’으로서의 ‘연대’의 언어를 획득하기 위한 집요한 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가?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5년 10월 28일

논문 심사일 : 2015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2월 5일

73) 얼마 전에 있었던, 비자유민주당 계열의 오키나와지사 및 중의원 의원 선출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74) 류준필은 이전에 “다케우치의 사상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사상의 공유 자원으로 삼을 만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동아시아(담론)는 다케우치의 문제설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케우치 사상에서 지금도 그 빛을 발하는 대목은 주체의 자기부정 혹은 저항으로서의 절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빛어지는 새로운 주체형성의 지점들에 대한 통찰이다”(「동아시아 지식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서(1)」, 『문학과 지성』 겨울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11, 225쪽)라고 논한 바 있다.

참고문헌

<1차자료>

- 竹内好, 「方法としてのアジア」, 武田清子 編, 『思想史の方法と対象』, 東京: 創文社, 1961.
- 竹内好 編, 『アジア主義』, 東京: 筑摩書房, 1963.
- 『竹内好評論集』3, 東京: 筑摩書房, 1974.
- 『竹内好全集』4, 5, 6, 8, 9, 15, 東京: 筑摩書房, 1981.
- 竹内好, 「序章 <アジア学>の視点」竹内好編『アジア学の展開のために』, 東京: 創樹社, 1975.

<저서>

- 『梶村秀樹著作集』1, 東京: 明石書店, 1992.
- 柄谷行人, 『世界史の構造』, 東京: 岩波書店, 2010.
- 柄谷行人, 『「世界史の構造」を読む』, 東京: インスクリプト, 2011.
- 柄谷行人, 『帝国の構造—中心・周辺・亜周辺』, 東京: 青土社, 2014.
- 子安宣邦, 『「近代の超克」とは何か』, 東京: 青土社, 2008.
- 子安宣邦, 『帝国か民主か—中国と東アジア問題』, 東京: 社会評論社, 2015.
- 松本健一, 『竹内好論—革命と沈黙』, 東京: 第三文明社, 1975.
- 松本健一, 『竹内好「日本のアジア主義」精読』, 東京: 岩波書店, 2000.
-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9.
- 溝口雄三, 『中国の衝撃』,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4.

<논문>

- 류준필, 「동아시아 지식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서(1)」, 『문학과 지성』 겨울호, 2001. 11.
-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한일병합’ 100주년에 즈음하여」, 『창작과비평』 통권148호, 2010.6.
- 백지운, 「다케우찌 요시미라는 아포리아」, 『창작과비평』 제136호, 2007.6.
- 柄谷行人·丸川哲史, 「帝国·儒教·東アジア」, 『現代思想』42-4, 青土社, 2014. 3.
- 姜在彦, 「朝鮮問題における内田良平の思想と行動—大陸浪人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一典型として」, 『歴史学研究』第307, 青木書店, 1965. 12.

中瀬寿一, 「竹内好編『アジア主義』—新植民地主義的進出のモラリッシュ・エネルギーとしての現代的機能」, 『朝鮮学報』第36, 朝鮮学会, 1965.10.

中野敏男, 「「方法としてのアジア」という陥穽—アジア主義をめぐる竹内好と梶村秀樹の交錯」, 『前夜』8, 影書房, 2006.夏.

中野敏男, 「植民地主義批判と朝鮮というトポス—アジア主義をめぐる竹内好と梶村秀樹の交錯 その2」, 『前夜』9, 影書房, 2006.秋.

<편저서>

鶴見俊輔・加々美光行 編, 『無限のナショナリズムを超えて—竹内好を再考する』, 東京: 日本評論社, 2007.

Abstract

The “Asia as a Method” in Takeuchi Yoshimi and the Topos of Choson

Hae-soo Kang

This paper is to figure out what we can still learn from Takeuchi Yoshimi(竹内好)’s two articles of “Asia as a Method” and “Pan-Asianism” to understand the topos of Choson at that time and Korea now. In other words, in writing this paper, there are two ultimate questions I deal with. What roles and positions do Choson or Korea have in his “Pan-Asianism”? What does it mean to talk about “Asia as a Method” now in Korea? By taking a closer look at what Takeuchi Yoshimi proposed in these two articles, I will try to find out what we can still learn from his “Asia” discourse. And hopefully, I will try to use it to question and problematize recent “East Asia” discourses of our own time.

Key words

Takeuchi Yoshimi, Asia as a Method, Pan-Asianism, Mizoguchi Yuzo, Karatani Kojin